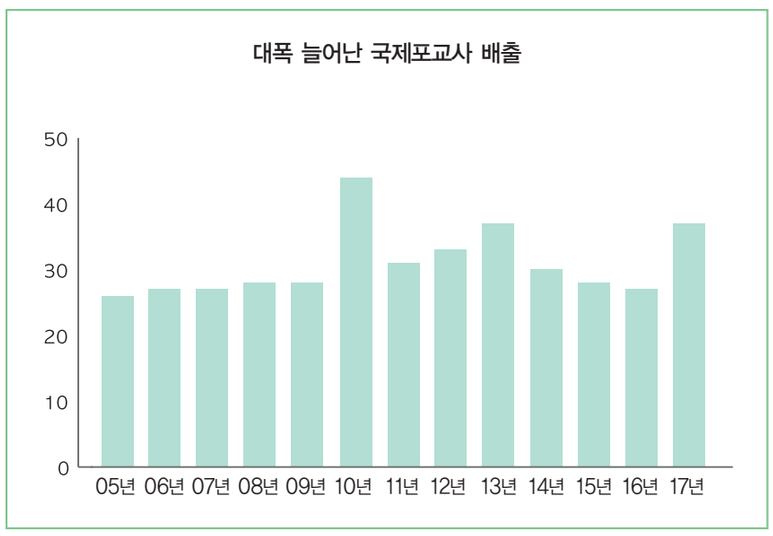
“스터디로 국제포교 신심 · 원력 증장을”

국제포교사회, 올해 국제포교사 37명 배출 화제

양성과정 통해 능력 배양
스터디 공간 및 활동 보장
“지원자 늘고 있어 희망”



한국불교 세계화의 첨병역할을 하는 국제포교사. 영어를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이들의 중요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인증하는 국제포교사 22기 양성과정의 사전시험 결과 37명의 응시자가 합격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국제포교사 양성 교재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국제포교사를 정식으로 배출해왔다.

매년 10~20여명이 배출돼 왔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증가세가 놀랍다. 기수별 배출자를 보면 정식 기수 외 54명과 기수 기산 이전 154명을 제외하고 1~5기 84명, 6~10기 145명, 11~15 158명, 16~20기 159명 등 꾸준히 늘었다. 22기의 경우 37명으로 역대 2위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영어 외 일본어 응시자도 3명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국제포교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민병완 국제포교사회 사무처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통번역 봉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참여 외국인에 대한 봉사활동 등 국제포교사들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은퇴교사 및 번역사, 해외거주 교민출신 등 국제포교사를 지원하는 이들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포교사들의 활동이 소개되며 지원자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비롯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포교사회는 매년 초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에 참가자를 지원받아 일정 심사를 통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4월 1일 입재를 시작으로 4월에는 불교교리 교육이 진행됐으며, 5월에는 PT 및 스피치 스킬, 수련회 등 실무교육이, 6월에는 서양 및 티베트, 동남아, 비교종교학 등 해외불교 및 이웃종교 교육, 7월에는 불교미술과 불교건축 등 응용분야 교육, 8월에는 템플스테이 지도 및 다문화 교육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회는 매주 수요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가졌지만 불교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혹은 불교지식이 많더라도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함께 참여해 자유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물론, 토론은 영어로 진행된다.

민병원 사무처장은 “달라이라마의 해외전법 등 흥미있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해 호응이 높다”고 반응을 전했다.

박홍우 국제포교사 회장은 “국제포교사들은 한명 한명이 훌륭한 전법 자원”이라며 “특히 다양한 포교가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9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 19회 국제포교사회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올해 최종 합격한 국제포교사들의 품수식을 시작으로 창립기념식, 토크쇼,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톡톡 튀는 아이디어 실현해볼까? 서울형MC 문을 두드려보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⑤ 이중서 제일상사 대표



‘이거 사업으로 하면 대박날 텐데!’ 생각보다 자주 하고, 자주 듣는 말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흔히 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은 안정성 · 경제성 등 여러 이유로 생각에만 그친다. 그럴 때 든든한 자금 기반이 마련돼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구로구에서 제일상사를 운영하는 이중서 대표(63)의 창업도 아이디어와 자금 지원, 두 박자가 맞았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심한 무릎통증으로 연골주사 등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운동기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더 경감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착안해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이 대표는 개발비용 문제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MC)을 통해 해결했다.

“자금 조달 방편을 찾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서울형MC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대출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이 대표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받은 대출금은 2,000만원. 무담보 ·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이 대표의 제품 개발은 순풍에 닻을 단 듯 진행됐다.

“무엇보다 무담보 · 저금리의 장점이 가장 컸습니다. 제품 개발 및 사업 초창기에는 자금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대출 후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사후 관리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영컨설팅은 이 대표에게 큰 힘이 됐다. 건강기구 관련 영업 경험은 있으나 제작은 해본 적 없는 이 대표에게 제작부터 판매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된 것. 이 대표는 이달 제품 출시 후 인터넷 쇼핑몰 및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홍보 판매를 계획 중이다.

“자리에 앉은 채로 운동이 가능해 더욱 안전합니다. 노약자 인구가 증가하는 요즘 피로회복 및 혈액순환, 관절운동 및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될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보급해 노약자 및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아름 기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전국 포교사 논산 훈련소서 결집한다

포교사단, 9월 9일 호국연무사 8재계 수계법회

군포교 활성화 일환으로
비용 아껴 후원금도 전달


포교사단 8재계수계법회 자료사진.

전국에서 활동하는 3500여 포교사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 모여 불법 홍포를 새롭게 다짐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9월 9일 오후 5시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15차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포교사단은 군포교에도 앞장서 현재 900여 포교사들이 군승법사가 없는 군법당에서 전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포교사들이 군장병들의 산실인 호국연무사에서 결집하는 것은 최초다.

매년 10만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수계받는 호국연무사에서 포교사들은 청정한 삶을 강조하는 팔재계를 수계한다. 여기에 22기 일반포교사 460명과 11기 전문포교사 138명이 새롭게 품수를 받는다. 입재식에서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연수특강이 진행되며 무박 2일간 철야정진으로 이어진다. 법회는 이튿날 새벽예불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정진과 함께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특강과 회향식으로 끝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호국연무사는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포교사와 가족들을 비롯해 올해 포교사 고시 최종 합격자 등 3500명이 참여해 신심을 새롭게 다지고 포교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국연무사에서 열리는 만큼 포교사단은 무대 설치 등 절감한 행사비용과 오후불식으로 모은 식사비 등 2000여만원을 군포교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아시아 장애불자 교류 사업 결실 눈앞

보리수아래,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 편집 들어가

미얀마 장애불자 8명 참여
총 37편 수록… 지원 절실

불자장애인 문화예술인 모임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9월 30일 출간 예정인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 편집 작업에 들어갔다.

아시아불교국가 장애인들과 한국 장애인들 간 국제교류의 첫 결실인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인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에는 시각장애인 미얏쭈에잉 씨, 절단장애인 밍카웅쪼스 씨 등 미얀마 장애시인 8명의 작품 15편과 정준모, 홍현승 최명숙 등 한국장애시인 5명의 작품 22편 등 총 37편이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수록된다.

이번 시집 발간은 한국장애인 불자들의 활동을 아시아불교국가에 알리는 계기이며, 장애로 인해 여행에 어려운 장애인 불자들에게 아시아 전통불교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집 발간에 참여한 미얀마 시인 중 시각장애인 미얏쭈에잉 씨는 시인뿐 만이 아니라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역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 학과 박장식 교수가 미얀마 시인들의 시를 한국어로, 주한미얀마대사관 통역관 레이레이몬 씨가 한국장애시인의 시를 미얀마어로 번역하는데 재능기부했다.

보리수아래는 9월 말에 시집 출간 후, 한국에서 10월 25일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10월 30부터 11월 3일까지, 3박 5일간 미얀마 현지의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해 시집과 원고료, 후원금을 전달 할 계획이다. 이어 미얀마 보장구센터 삐존 치두레뚜 니삔야 세윤을 견학하고 양곤과 바간 지역의 불교 유적도 순례한다.

이번 시집 발간비는 조계종 불교시민단체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500만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기타 미얀마 현지 활동비 등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덕현 기자

(사) 한 국 미 륵 불 교

봉 제2회 선조사 제례 및 법계품수 대법회 행

(사)한국미륵불교 법맥인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의 靈位를 모신 제례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사)한국미륵불교 법계품수와 효사랑 큰잔치도 같이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日 時 : 불기2561(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 場 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문 의 : 055)672-4394

◆ **1부** : 제 례 – 선조사 고암 상언 대종사 외 19위 제례 봉행
◆ **2부** : 법계품수 – 한국미륵불교 대종사 : 혜안스님. 행화스님
한국미륵불교 종 사 : 삼봉스님. 원봉스님
◆ **3부** : 孝사랑 큰잔치 – (사)가야국악단원 축하공연(민요, 가요, 춤, 장기자랑 등)





● **주최 : (사)한국미륵불교** ● **주관 : (사)한국미륵불교. 법련문도회**